

코오롱, 글로벌 수처리기업 “부상”

SC, 계열사 EFMC에 400억원 투자 ... 신규사업 확대에 100억원 추가

코오롱그룹이 영국계 은행 SC(Standard Chartered)와 하수처리 등 물 사업과 관련해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.

조 스티븐스 SC 투자총괄대표와 코오롱그룹 계열사 환경시설관리공사(EFMC) 이주홍 사장은 6월29일 과천 코오롱 본사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EFMC를 글로벌 환경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기로 하고 싱가포르에서 본 계약을 체결기로 했다.

SC는 400억원을 투자해 EFMC의 지분 40%를 확보하고, EFMC의 신규사업 확대를 위해 추가로 10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앞으로 국내외 관련사업 및 신규사업에도 공동 투자기로 합의했으며, EFMC는 SC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조해 중국과 인디아 등 해외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.

조 스티븐스는 “SC의 중요한 투자전략 중 하나는 환경산업 분야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가 될 기업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것”이라며 “코오롱 그룹은 한국 수처리 산업의 독보적인 경험과 역량을 가진 최적의 파트너”라며 EFMC에 대한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.

EFMC는 1998년 국가산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으로 시작한 환경전문기업으로 2007년 초 코오롱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으며, 2008년 매출액은 1725억원을 기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6/29>